

看護教育의 理念

~간호를 잘하는 간호원양성~

<이화여대 간호학과 교수> 이 영 복

“理念”의 일반적인 定義는 “理性에서 얻은 最高의 概念으로서 모든 經驗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까다로운 말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題目을 쉽게 그리고 現實的으로 풀이해서 “看護教育은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하는 간호교육의 目的과 “간호교육을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이냐?”하는 간호교육의 理想을 말함으로써 看護教育理念의 한 부분만이라도 설명해 보고자 한다.

× × ×

結論부터 말한다면 “간호교육은 교육을 위한 교육이라는 생각보다는 간호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라는 생각”을 理念으로 삼아야겠다. 아무리 合理的인 教育制度和 教育課程과 教育方法下에서 이루어진 간호교육이라도 그 結果 즉 교육을 받고 나온 간호원들이 간호를 할줄 모른다든지 간호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해서 간호원다운 간호원이 되지 못한다면 그 간호교육은 잘못된 교육일 것이다.

그 어딘가에 虛點과 缺陷이 있을 것인데 이 잘못된 根源은 理念(idea, conception)의 錯誤와 動機(motivation)의 부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겠다.

이 理念과 動機가 교육을 하는 교육자에게나 교육을 받는 被教育者에게 다 함께 움직이지 않는 限 간호교육을 위한 制度나 施設등은 제구실을 다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理念과 動機 혹은 理想을 表面的으로 내세우고 늘 주장하고 떠들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潛在的인 勢力이 되어서 現實에 대한 眞誠으로 轉向되어야 할 것이다.

× × ×

教育 즉 educate이란 educare에서 온 말인데 e는 外部라는 뜻이고 ducare란 끌어낸다 라는 뜻이라고 한다. 즉 피교육자의 속에 있는 素質을 밖으로 살려내어서 쓸도있게 하는 것이 교육이란 뜻이다. 물론 교육을 한다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할 때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目的과

動機 또는 그 일에 대한 價値判斷 혹은 그 일에 대한 意義를 깊이 깨닫지 않고 한다면 그것은 트보트(人造人間)이거나 아니면 人間으로서는 善役이 될 것이다.

요사이의 인조인간이 간단한 동작으로 되는 웬만한 일들은 해낸다고 한다. 그러면 진짜인간과 인조인간이 이 경우에 다른 것은 무엇일까? 진짜인간은 그 하는 일에 목적과 意義를 알고 하고 인조인간은 그냥 기계적으로만 한다는 점이 다르겠다. 우리가 無意識의인 反射運動을 할때나 낚을 그대로 模倣할 때나 盲從할 때는 理想이 있을 수도 없거나와 크게 作用을 하기 어렵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예를 들겠다. 新敎派敎會堂으로는 가장 유명한 런던의 聖바울敎會堂은 17세기 영국의 大藝術家 크리스트 퍼·웬(Wren)의 필생의 大作이라고 한다. 그가 거대한 건축과 조각을 하는 동안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로는 디로와 失意로 거의 중단상태에 이른 때도 많았다고 한다. 하루는 우울한 심정으로 틀을 짚고 있는 石工들 틀을 다니면서 말을 전해보았다. “당신은 왜 틀을 짚고 있습니까?” 石工 A가 대답하기를 “하루 종일 틀을 짚고 나면 몸값을 받게 되니까요”하였다. 또다른 石工 B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의 대답은 “오늘 아침에 우리 감독이 이만한



이영복

하루의 분량을 내게 주었으니까요” 하였다. 한 모퉁이를 들어서 石工 C에게 다시 물었다. 열심히 일하던 손을 멈추고 그는 대답하였다. “우리 나라의 大建築家 크리스토퍼·웬이 지금 千秋에 빛날 大聖殿을 짓고 있습니다 이 큰일에 나도 한몫 참여하기 위하여 틀을 짚고 있습니다” 하였다. 웬은 이 한마디에 큰 용기를 얻었다. 그 때 이후 실망하지 않고 大課業을 완수했다고 한다.

이렇게 理想은 용기와 迫力을 가적이고 때로는 方向을 가르키는 指南針의 역할도 하며 또한 다른 사람을 感化 혹은 촉발시키는 힘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敎育者에게 필요한 것이다. 敎育자가 피敎育자에게 지식이나 기술만을 전달하면 그는 지식과 기술의 傳達者가 될 것이나 확고한 理想과 더불어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또한 그 理想자체도 불려를 때 그는 비로소 敎育자가 된다고 하겠다.

X X X

다음에 생각할 것은 看護의 理念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看護의 理念은 人類를 토대로 하는 人道主義(Humanitarianism)에 두고 있다. 그러기에 看護의 理念을 實踐에 옮길 때 人類에 대한 奉仕로 나타나는 것이다. 人道主義란 무엇인가? 사람의 生命과 人性과 本能과 感情이 모른것 즉 人間의 尊嚴性을 認識하고 이들을 사랑과 奉仕로 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看護의 理念은 그리스도의 福音과도 통하고 赤十字精神과도 통하고 人道主義를 提唱한 人間性的인 칸트(Kant), 루소(J.J. Rousseau) 또는 톨스토이(L.N. Tolstoy) 기타 많은 人道主義者의 主唱과도 통한다. 다만 다른 것은 그 실천방법이다. 그리스도는 十字架를 통해서 萬人을 위해 실천했고, 듀낭(Dunant)은 제네바條約의 具現을 통해서 赤十字정신을 실천했고 學者들은 理論의 展開와 研究를 통해서 혹은 作品을 통해서 공헌했다. 그러나 간호원은 그 몸과 마음과 精力과 時間을 다 바쳐서 직접 人間の 生命을 지키고 肉體와 精神을 평안케 해주고 평안케 해주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아픔과 피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줌으로써 人道主義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際看護道德法規(International Code of Nursing Ethics)에도 「人類에 대한 奉仕는 간호원의 기본적인 기능이

며 간호사업이 存在하는 理由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臨終이 당해오듯이 所望없는 환자를 위해서도 最後까지 最善을 다 하는 것이 人道主義의 發露이다. 역사 敎育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간호에 있어서도 이것을 理念으로 혹은 主義(ism)로 내세우거나 떠들것은 되지 못하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다만 이 理念으로서의 人道主義가 우리들의 感觸과 行爲와 思想과 知識등 一切의 經驗을 통제해 나가는 原動力이 되어질 뿐이어야 한다.

看護의 理念은 理論이나 應變으로 설명하기보다도 오늘 어 總會席上에 나오신 나이팅게일記章을 받으신 선배會員들이 몸소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이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境地에서 건져 주고 그들에게 정신적인 위로와 육체적인 평안을 주는 일에 專心專力을 기울여 왔다. 自身들은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궁핍을 겪으면서도 그들의 책임을 끝까지 수행했으며 또한 이 일을 지극히 겸손하고 조용한 태도로 해왔다. 이분들에게 看護의 理念을 설명하라고 하면 조리있게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분들이야 말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간호 理念의 간 標本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精神이 살아있다” 혹은 “奉仕를

하고 있다”라는 따위의 말은當事者가主張을 하거나 宣告를 하게 되던 오히려 그 實在를 否定하게 되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만 被看護者가 이를 몸소 느끼고 體驗해서 이를 立證하며, 實績과 功績이 쌓이고 모여서 빛을 발하는 結晶體가 되고 하나의 纪念碑(monument)가 되어야 할 것이다.

理愈에서 움직이는 간호는 감동은 받든지 안받든지 혹은 評價를 받든지 안받든지 被看護者(個人 혹은 社會, 환자 혹은 健康人)들 위해서 最善을 다하는 것이다. 所謂 말하는 質의간호란 이것을 의미한다.

× × ×

그러면 教育의 理念을 가진 看護教育者들이 看護의 理念을 가진 간호원을 길러내야만 看護教育의 理念을 제대로 具現하게 되겠다.

이 점을 나는 내 나름으로 이렇게 종합해 보았다.

간호교육의 목적은 좋은 간호원을 기르는 것이다. 좋은 간호원이란 社會가 要求하는 간호원 즉 社會의 單位인 家庭과 社會의 核인 人間 하나 하나의 福祉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간호원을 말한다.

이상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곳이 看護教育機關이다. 그러므로 看護學校에서는 看護員이 되고자 선발된 看護學生 하나하나를 좋은간호원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의 네가지

發展過程을 계획한다.

- ①倫理的 文化的 발전 (ethical and cultural development)
- ②社會的 발전 (social development)
- ③職業的 발전 (professional development)
- ④知的 발전 (Intellectual development)

以上の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敎育課程을 마련하고 좋은 교수진을 동용하고 좋은 학생을 선발하여 적당한 教育시설과 기능을 잘하는 실습병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잘 運營하기 위하여 看護敎育行政力이 발휘되어야 하며 한편 大衆社會와의 접촉과 그들의 善意의 協調를 유지해야 된다.

몇 줄의 글이나 몇 다디의 말로 늘어놓기는 쉬우나 사실 위에 要約한 看護敎育계획을 잘 실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教育에 참여하는 하나하나가 그 하는 일이나 位置의 크고 적은 것, 높고 낮은 것을 불문하고 다 함께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는 성취하기 어려운 노릇이다. 오늘 우리의 現實로 보아서 理念이라는 절절한 말보다도 오히려 情熱이라는 뜨거운 表現이나 투쟁이라는 過激한 文句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할 것같이 느껴진다.

그런데 큰일이고 어려운 일에는 分擔이 필요하고 重點的인 努力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로 직접 간호학생을 敎授하고 指導하는 각 선생님들은 좀 더 학생들의 倫理的 및 人格의인 발전에 기여하도록 스스로의 理念과 姿勢를 정제해야 되겠다. 이것은 說明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模範과 鑑養으로 되기 때문이다.

두째로 간호학교 당국은 敎育課程 운영에 좀더 충실해야겠고 슬지해야겠다. 形式과 數字보다도 內容과 結果를 重視해야겠다.

학생들의 知的 文化的 발전을 위하여 敎養科目을 적절하게 운영해야겠다. 교양과목의 分量과 깊이 보다도 그 性格과 適用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교양과목들을 좋은 看護에 적용하는 결과가 바람직한 것이지만 교양과목 때문에 좋은 간호를 회생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專攻科目을 충실히 가르쳐야겠다. 講義와 實習의 連結을 위해 제한된 條件이라도 最高度로 이용이 되어야겠다. 주어진 條件이 너무도 虛無해서는 敎育을 하지 않는이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敎育者의 良心으로는 싸워서 爭取할 길이라도 있다면 싸우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專門科目이나 臨床科目을 맡은 선생님들은 좀더 實習場(병원이전, 保健所전)에 부지런히 나가야겠다. 한편 敎育病院에 있어서 看護員의 機能은 언제나 간호학생들의 實習指

導責任을 겸해서 任命을 받는 것이므로 감독이나 首看護員은 물론이고 일반 졸업간호원들도 좀더 간호학생들을 지도하고 보살피 주어야겠다. 졸업후 몇년의 세월이 흘러간 후라도 내가 학생시절에 졸업간호원들에게 바라고 안타까워 하던 그 招待를 몸소 실천해 보려는 誠意라도 계속 하여야겠다.

세째로 爲政當局이나 專門團體 등 혹은 看護敎育研究分野에서는 全體的인 우리나라의 看護敎育方向을 연구하고 제척하고 바르 指示해 주어야겠다. 이 점에 있어서

- ①간호교육의 質을 유지하면서 漸進的으로 혹은 年次的으로 量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고도 시급 하겠다.
- ②科學的인 발전과 國際水準과 位置를 지키면서 우리나라의 特性도 살리고 土着化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現代化가 아닐까 생각한다.
- ③看護業務(nursing service)의 완수를 看護敎育의 本然의 使命으로 삼으면서 看護學의 學術的인 向上과 研究의 態勢도 확립 해야 될 것이다.

× × ×

以上 세가지 課題를 지혜롭게 調整하고 打開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看護敎育 理念의 흐름이 항구적으로

<간호교육의 이념>

계속될 것이며 專門看護事業이 그렇게 됨으로써 國民保健에 危害가 位置를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없을 것이다.

해의 진출 회원 추천 규정

본협회 섭의공보위원회에서는 해의진출 회원의 추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재규정하고 이 기준에 의해 추천키로 하였다.

자 격

1. 간호학과나 간호학교를 졸업한 면허소지자로서 종합병원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으며 본협회 회원인 자.
2. 간호고등기술학교 졸업한 면허소지자로서 종합병원 근무경력이 2년 이상 있으며 만 23세 이상으로 본협회 회원인 자.

구비서류

1. 초정장 사본제출(원본 제시)
2. 비정기표나 여비증명서 사본제출(원본제시)
3. 추천의뢰서 제출(소정양식)
 - {최종기관장 추천
 - {소속지부장 추천
4. 서약서(소정양식)
5. 사 진 1대
6. 이 력 서 1통
7. 봉 금(\$400 이상)

위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추천할 수 없습니다.